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 인지 관련 요인

조영식[†] · 황혜림 · 주승미 · 최정윤 · 황미라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Factors Affecting Occupation Awareness for Dental Hygienist in High School Students

Young-Sik Cho[†], Hye-Rim Hwang, Seung-Mi Joo, Jung-Yoon Choi and Mi-Ra Hw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Namseoul University, Chunan-City 331-707,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ecognition of occupation title for dental hygienist in high school students. Total 210 students of one high school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ntal service utilization and occupation title awareness for health care personnels. Female and science tract students showed higher level of awareness for dental hygienist but showed no differences according to dental service utilization pattern. The study showed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 recognition for dental hygienist and other health technicians. But there were no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 awareness for dental hygienist and dentist, nurse. Gender, occupation recognition for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physical therapist affect occupation recognition for dental hygienist.

Key words Cognition of occupation, Dental hygienist, Occupation awareness

서 론

진로 선택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직업인지도는 특정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반영하며, 해당 전공에 대한 대학 입시의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업인지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 역할, 지위 수준, 일의 영역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직업을 인지하게 된다¹⁾. 학생들의 직업 인식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게 된다²⁾. 진로탐색은 직업정보의 탐색, 인지, 평가에 의해 진행되는데³⁾, 특히 직업명칭을 아는 것은 직업인식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직업명칭을 기준으로 분류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⁴⁾, 치과위생사는 대분류 중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며, 중분류 중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속하며, 소분류 중 ‘245.치료사 및 의료기사’에 속한다. 세분류는 ‘2454.치과위생사’를 비롯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와 의지보조기기사,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를 보조하여 치주 질환을 예방·치료하고 구강관리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명칭이 사용된지 50년 가까이 되고, 학제가 2년제, 3년제, 4년제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⁵⁾, 현재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78개교에 달하고 있지만⁶⁾,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 등⁷⁾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면서, 중앙일간지에서 ‘치과위생사(32.5%)’, ‘치위생사(57.5%)’, ‘위생사(3.9%)’ 등으로 직업명을 표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을 주제로 연구된 문헌은 파악되지 않았다. 치과위생사 직업인지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라⁸⁾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신⁹⁾은 내원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정 등¹⁰⁾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 또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하도록 구성된 문항으로 조사를 하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지도는 46.6%~76.1%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과 응답범주로 구성된

[†]Corresponding author
Tel: 011-9639-2101
Fax: 041-580-2927
E-mail: cyoungs@nsu.ac.kr

설문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명이 미리 제시됨으로써 응답 바이어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나 기타 직업정보의 설명을 제시하고, 해당 직업명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직업인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치위생(학)과의 입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과진료경험에 따른 인지율의 차이를 조사하고, 보건의료직종의 직업명칭 인지율을 비교하며,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각 학년별로 70명씩을 할당추출하여 총 21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5월 첫째주에 조사원 3명이 학교측의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공문을 지참하여 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장의 동의와 학생들의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졌다. 회수된 21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진료 이용경험,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직업명칭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계열, 보건의료직 가족 및 친지 유무를 조사하였다. 치과진료 경험은 치과방문경험, 정기적 치과방문, 구강보건교육 경험을 조사하였다. 보건의료직종 직업명칭 인지도는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9개 직종에 대해 직업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해당 직종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먼저 의사에 대한 예시문을 제시하여 응답에 도움을 주었으며, 직업명칭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직업명칭에 대한 보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간호사에 대한 설명문은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고 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수행한다.”이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설명문은 “치과에서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환자의 스케일링과 잇솔질 교육 등 예방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한다.”이다.

3. 통계분석

일반적 특성과 치과진료경험 조사항목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명칭을 알고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과진료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도의 차이를

알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및 치과진료경험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및 치과진료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과진료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여부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학생은 19.3%가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을 인지하고 있으나, 남학생의 인지율은 5.7%에 불과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연계 학생들의 인지율은 24.2%로서 인문계 학생들의 인지율(14.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37$).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인지율(15.5%)이 없는 집단(6.3%)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기적인 치과검진 여부와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는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족과 친지 중 보건의료직종 종사자 유무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2.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직업명칭 인지도 비교

보건의료직종별 직업 명칭에 대한 인지율과 평균인지율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평균 인지율은 31.3%로서 학생 1인당 평균 3개 직종에 대해 직업명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지율이

표 1. 일반적 특성 및 치과진료경험에 따른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도(N=210)

변수		n(%)	χ^2	p-value
성별	남	4(5.7)	6.831*	0.006
	여	27(19.3)		
학년	1학년	5(7.1)	5.752	0.056
	2학년	15(21.4)		
	3학년	11(15.7)		
계열	자연계열	15(24.2)	8.477*	0.037
	인문계열	11(14.3)		
	예체능계열	1(20.0)		
	기타	4(6.1)		
치과방문경험	유	30(15.5)	0.997*	0.281
	무	1(6.3)		
정기적 치과검진	유	10(18.5)	0.815	0.244
	무	21(13.5)		
구강보건교육경험	유	20(15.3)	0.071	0.479
	무	11(13.9)		
보건의료직종친지	유	6(24.0)	1.925	0.139
	무	25(13.5)		

*Fisher's exact test

표 2.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직업명칭 인지도

(N=210)			
	N	%	순위
간호사	197	93.8	1
치과의사	164	78.1	2
물리치료사	110	52.4	3
간호조무사	33	15.7	4
치과위생사	31	14.8	5
치과기공사	27	12.9	6
방사선사	21	10.0	7
임상병리사	7	3.3	8
작업치료사	2	1.0	9

표 3.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 정확도

(N=210)		
	N	%
치과위생사	8	3.8
치위생사	23	11.0
치과간호사	17	8.1
간호사	27	12.9

표 4.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와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직업명칭 인지의 관련성

(N=210)			
	N(%)*	χ^2	p-value
치과의사	26(83.9)	0.709	0.279
물리치료사	28(90.3)	20.990	0.000
간호사	27(87.1)	2.822	0.106
방사선사	9(29.0)	14.637	0.001
간호조무사	8(25.8)	2.797	0.085
임상병리사	5(16.1)	18.480	0.001
치과기공사	8(12.9)	5.443	0.027
작업치료사	0(0)	0.350	0.726

*치과위생사와 해당 직종 직업명을 동시에 알고 있는 응답자 수

높은 직종은 간호사로서 93.8%에 달하고 있으며, 치과의사(78.1%), 물리치료사(52.4%), 간호조무사(15.7%), 치과위생사(14.8%), 치과기공사(12.9%), 방사선사(10.0%), 임상병리사(3.3%), 작업치료사(1.0%) 순서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지율은 14.8%로서 9개 직종 중 5위에 머물렀으며, 평균 인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치과위생사 또는 치위생사라고 적은 경우를 정답

으로 다중 응답 처리한 결과로서 치과위생사 직업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의미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에 대한 인지 정확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210명 중 직업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치과위생사’라고 정확하게 기재한 학생은 8명(3.8%)에 불과하였고, 23명(11.0%)가 ‘치위생사’라고 응답하였다. ‘치과간호사’ 또는 ‘간호사’라고 응답한 학생이 44명으로 21%에 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 여부와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직업명칭 인지여부의 관련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에 대한 인지 여부는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업명칭 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의료기사 직종인 물리치료사(p<0.001), 방사선사(p=0.001), 임상병리사(p=0.001), 치과기공사(p=0.027)에 대한 직업 명칭 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과진료경험 관련 요인이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진 방법에 의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chi^2=38.072$, p<0.001), Cox & Snell의 결정계수는 0.166이며, Nagelkerke의 결정계수는 0.292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16.6%, 29.2%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700이므로 모형은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었다. 독립변수 중 성별(Wald=4.287, p=0.038), 임상병리사 직업명칭 인지(Wald=7.016, p=0.008), 물리치료사 직업명칭 인지(Wald=12.630, p<0.001) 여부가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을 인지할 가능성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3.4배 높고, 임상병리사 직업명칭을 알고 있을 경우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을 인지할 가능성이 12.1배이며, 물리치료사 직업명칭을 알고 있을 경우가 9.8배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지율(24.2%)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들의 직업인지가 진로탐색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치과위생사가 여

표 5.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B	S.E.	Odds Ratio	95% CI		Wald	p value
				Upper	Lower		
성별	1.230	0.594	3.423	1.068	10.971	4.287	0.038
임상병리사	2.496	0.942	12.134	1.914	76.931	7.016	0.008
물리치료사	2.278	0.641	9.757	2.778	34.273	12.630	0.000

성 중심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연계 여학생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고생 대상의 홍보 및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 직업명 인지는 치과의사, 간호사 직업명 인지와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같은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90.3%), 방사선사(29.0%), 치과기공사(12.9%), 임상병리사(16.1%) 직업명 인지와 유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의료인 직종에 비해 의료기사 직종의 직업인지도가 낮으며, 의료기사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다른 의료기사 직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 및 보건계열 학과의 일반적인 입시경쟁률 추세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직종별 인지율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명 인지율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직업인지도의 지표로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협회와 대학이 함께 치과위생사 직업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라⁸⁾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정 등¹⁰⁾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46.6%의 연구대상자가 치과위생사를 알고 있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이상의 연령,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사무직종사자나 가정주부들 중에서 치과위생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신⁹⁾은 내원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내원환자는 69.2%, 일반인은 62.2%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와 타 직종 구분은 주로 업무와 복장을 보고 구분하였고, 202명 중 치과위생사가 '직접 소개하여' 알게 되는 경우 13명에 불과하였고, 호칭을 듣고 아는 경우도 23명에 불과하였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호칭은 주로 선생님, 간호사 등이었으며, 치과위생사라고 부르는 경우는 내원환자는 8.7%, 일반인은 4.1%에 불과하였다. 유¹¹⁾는 성인 환자 4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76.1%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또는 '치위생사'라고 기재한 인지율이 14.8%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원 환자 대상이라는 점과 질문과 응답형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 식의 양자택일형 응답범주에 대해 답하는 경우 인지율은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 직업명 인지율이

93%를 상회하여 치과위생사 직업명 인지율과 80% 정도의 격차가 있고, '치과위생사'라는 직업명을 정확하게 적은 학생이 3.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위생사 직업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집단 대상의 확률표본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율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단 특정 집단에서 치과의사, 간호사 등 관련 직종의 직업명칭 인지율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할당표본추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직업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는 한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각 학년별로 70명씩 할당추출을 하여 총 21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치과진료경험에 따른 인지도와 다른 보건의료직종 직업명칭 인지도 등을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에 의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 중 여학생은 19.3%가 치과위생사 직업명칭을 인지하고 있으나, 남학생의 인지율은 5.7%에 불과하였다($p=0.006$).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연계 학생들의 인지율은 24.2%로서 인문계 학생들의 인지율(14.3%)보다 높았다($p=0.037$). 치과진료경험, 치과정기검진, 구강보건교육 경험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보건의료직종 중 직업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간호사가 가장 높고(93.8%), 치과의사(78.1%), 물리치료사(52.4%), 간호조무사(15.7%), 치과위생사(14.8%), 치과기공사(12.9%), 방사선사(10.0%), 임상병리사(3.3%), 작업치료사(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치과위생사'라고 정확하게 기재한 학생은 8명(3.8%)에 불과하였고, 23명(11.0%)이 '치위생사'라고 응답하였다.
3. 치과위생사 직업명칭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Wald=4.287, $p=0.038$)과 임상병리사(Wald=7.016, $p=0.008$) 및 물리치료사(Wald=12.630, $p<0.001$) 직업명칭 인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병숙, 김소영: 대학생의 가정 문화자본과 직업인식 및 직업인지도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1): 147-165, 2008.
2.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2003.
3. 박정주: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대학생의 직업정보인지도에 관한 종단 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289-303, 2010.
4.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전, 통계청, 2007.
5. 조영식: 학사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연구. 치위생과학회지 5(4): 251-258, 2005.
6. 조영식 등: 치과위생사의 취업지속 및 재취업 관련 요인 조사. 서울,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011.
7. 오상환 등: 한국 신문에 게재된 치과위생사 관련 기사 분석: 2005~2008년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치위생학회지 9(1): 59-68, 2009.
8. 라수연: 대학생들의 치과위생사에 관한 인식 조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용인, 2005.
9. 신경선: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미지 조사: 내원환자와 일반인 비교분석[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용인, 2009.
10. 정원균 등: 일부 지역사회 주민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및 업무 인지도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6(4): 403-417, 2006.
11. 유미선: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선호도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전주, 2003.

(Received May 24, 2011; Revised August 1, 2011;
Accepted August 6, 2011)

